

여수박람회 전시관 예약제 폐지 대혼란

선착순 입장...퇴약별 줄서기 대책 없어 관람객 항의

여수세계박람회(8월 12일까지·이하 박람회) 조직위가 박람회 개막(12일) 16일 만에 들인 '전시관 예약제'를 포기하는 등 갑자기 행보로 관람객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전시관 예약제는 관람객이 줄을 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아쿠아리움 등 인기있는 8개 전시관은 예약을 통해 입장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조직위가 갑작스럽게 예약제를 폐지하면서 관람객들의 불만이 폭주, 결과적으로 박람회 성공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조직위가 전시관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관람객을 입장시킨 28일 오전 10시, 아쿠아리움 일대에는 1만여명의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선착순 입장이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앞다투 줄을 서지만 "늦게 줄을 선 사람은 입장하려면 앞으로 7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조직위의 안내에 관람객들은 썰물처럼 다른 전시관 앞으로 빠져나갔다.

전시관 예약제 폐지 조치는 11만명의 관람객이 몰린 지난 27일, 전시관 예약이 1시간여만에 모두 끝나버린 자 관람객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조직위가 이날 오후 돌연 발표한 것이

다. 조직위는 다만, 기존에 전시관 예약을 마친 관람객은 예약 시간에 맞춰 입장시키기로 했다.

전시관 예약제의 문제점은 개막전 3차례 진행된 예행연습에서도 드러났다. 사전 정보가 충분치 못한 관람객과 인터넷 등 예약 기기가인 박람회장 미디어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못한 노인층은 전시관 예약제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예약을 한 사

람과 무작정 전시관 앞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뒤엉켜 조직위가 운영에 혼란을 빚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예약제 포기에 따른 후속 대책 없이 관람객 항의가 잇따르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반복한 조직위의 모습도 문제다.

조직위 배영한 제3사무처장은 "장시간 줄을 서는 문제 등)모든 것을 관람객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면서 "퇴약별에 4시간, 5시간씩 기다린다는 항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예약제 관련 민원이 많아 어쩔 수 없이 폐지했다"고 밝혔다.

개막 전부터 야심 차게 홍보했던 전시관 예약제를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했고, 뺨치 관람객들의 장시간 전시관 앞에서 대기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예약제를 포기한 셈이다.

조직위는 "예약제 폐지 결정은 1주일 이상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름철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관람객 편

의에 대한 후속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한편 누적관람객 100만명 돌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석가탄신일 연휴'(26~28일)에 총 관람객은 22만5220명(이하 28일 오후 6시 현재)에 그쳐 28일 현재 누적관람객은 79만938명이다. 또 11만여명이 찾은 지난 27일에는 빅쇼가 열리는 해상무대에 수 만명이 한꺼번에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오광북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태기자 mtlm@



전시관 입장 사전·현장예약제가 폐지되고 선착순 관람제로 전환된 28일, 2011 여수세계박람회의 최고 인기 전시관인 아쿠아리움에서 관람객들이 길게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알림

11월 美대선, 승자는 누구냐

앨런 리히트먼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

광주일보에는 주한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미국의 저명한 정치역사학자 앨런 리히트먼 교수(Allan Lichtman·아메리칸 대학)를 초청, 미국대통령선거와 한미관계를 전망해보는 특별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대통령 선거는 대북정책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및 세계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올해 미 대통령 선거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대통령선거와 민심읽기'라는 주제로 강연할 앨런 리히트먼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미국 현대사와 양적방법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올해의 학자'상(1992년) 등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저서 '백악관으로 가는 열쇠'(The Keys to the White House)에서 선보인 예측모델로 지난 1984년 이후 치러진 6번의 미 대선결과를 정확히 예측해 '족집게(pin pointer)'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강연회에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6월5일 오후 2시
- 장소=광주YMCA 2층 무지관
- 문의=062-220-0651.

주최: 주한미국대사관·光州日報社

오늘의 여수엑스포

▶ 관련기사 3편

'발레 한류'를 이끌고 있는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작. 바다 위에 떠 있는 야외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한국 발레 역사상 처음이다. 지난 1986년 초연 후 지금까지 10개국 200여회 공연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쌓고 있다. 월드투어를 통해 '발레 한류'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대작이다.

- ◇발레심청(해상무대·7시30분)
- ◇국가의 날-에리트레아(엑스포홀·오전 10시)
- ◇캄보디아 전통춤 공연(해양광장·오전 11시)
- ◇아르헨티나 탱고 공연(해양광장·오후 3시30분)
- ◇독일 카를리네 피셔의 피아노 연주(엑스포홀·오후 6시)
- ◇엑스포 가요 페스타-거미(천막극장·8시20분)

- ▲어제의 관람객 수=4만2809명(이하 28일 오후 6시 현재)
- ▲누적관람객 수=79만938명

김한길 경남·제주서 연속 1위

민주 당대표 경선 선두 이해찬 후보 81표차 추격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을 위한 제주 대의원대회에서 김한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종합 순위 1위 이해찬 후보와 순위를 뒤집지는 못했다.

지난 27일 전남 제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지역 순회 대의원대회에서 김 후보는 65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위는 58표를 얻은 추미애 후보가, 3위는 49표를 얻은 이해찬 후보가 각각 차지했다.

지난 26일 경남도당 대의원 투표에서 김한길 후보가 258표를 얻어 150표를 얻은 이해찬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이날 현재까지 부산과 경남, 광주·전남 등 7개 지역에서 대의원투표를 실시했으며, 김 후보가 4개 지역에서, 이 후보가 2개 지역에서 각각 승리했다. 그러나 누적 투표수를 보면 부산과 대전·충남에서 몰표를 받은 이 후보가 1597표로 1516표를 얻은 이 후보를 81표 차로 따돌리

고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강기정 후보는 1001표로 누적투표 3위를 달리고 있고, 추미애 후보가 954표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어 이상호 후보 714표, 조정식 후보 682표, 이종걸 후보 589표, 문용식 후보 259표 등의 순이다. 이 같이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흥미를 계속 더하고 있는 가운데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민주당 경선이 이제부터 시작이

■ 민주당 대표경선 득표 집계

순위	후보	누계
1	이해찬	1597
2	김한길	1516
3	강기정	1001
4	추미애	954
5	이상호	714
6	조정식	682
7	이종걸	589
8	문용식	259

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까지는 총 13개 지역 대의원투표 가운데 7개 지역에서 실시된 것에 불과하고, 전체 대의원투표수의 48.8%가 풀려 있는 수도권 투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핵심은 당 대표 경선방식이 대의원투표 30%, 시민·당원투표 70%로 이뤄지는데,

이중 70%가 반영되는 시민·당원투표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어느 후보가 우세하다고 단정지어 말할 순 없지만 이 후보는 메시지로 승부한다는 계획인 반면, 김 후보는 정책과 비전을 중점적으로 제시, 승부를 가르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2012년 7월 2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 100시간)
☎062)605-1112, 1063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DYNASTY COUNTRY CLUB

사계절 진초록 카펫이 당신의 소유

새벽, 산새들의 지저귀음 속에 깨어나는
王家(dynasty)의 정원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며
최고의 샷에 응답하는 스물일곱개의 홀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코스는
당신의 발길을 기다리는 진초록 카펫

이 모든것이 이젠 당신의 소유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VIP 7차 회원모집

1 회원특전 선택 01 분양금액 1억 7천 5백만원

- 주 말 부 킥 - 월 4회(부킹자 정회원) - 잔여시간 정회원 추천인 우선부킹 가능
- 정 회원 1명 - 그린피 면제(주중/주말) - 동반자 3인 준회원대우(주중/주말, 년 50회)
- 지명회원 1인 - 그린피 면제(주중/주말) - 동반자 3인 준회원대우(년 24회)
- 정회원 및 동반자 3인 골프텔 40%할인

1 회원특전 선택 02 분양금액 1억 7천 5백만원

- 주 말 부 킥 - 월 4회(부킹자 정회원) - 잔여시간 정회원 추천인 우선부킹 가능
- 정 회원 1명 - 그린피 면제(주중/주말) - 동반자 3인 준회원대우(주중/주말, 년 50회)
- 무기명카드 2매 발급 - 카드 소지자 그린피 면제(2매 합계 총 84회)
- 정회원 및 동반자 3인 골프텔 40%할인

구 분	분양가	납입 방법	
		계약금	잔 금
개 인	175,000	17,500	157,500
법 인	350,000	35,000	315,000

납입시기: 계약금 계약후 1개월내

■ 코스규모 : 27홀, Par 108(전장 : 9,635m)
■ 모집인원 : 선착순 30구좌
■ 모집기간 : 2012년 5월 31일까지
■ 수납은행 : 광주은행 727-127-005215
* 예금주: (주)광주일보사함평다이내스티C.C

1 구비서류

- 인회신청서(소정양식).....1부
- 사진.....3매
- 개인/주민등록증.....1매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각 1매
- 주민등록증.....각 1매

가 입 이 안 내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주)광주일보사 Tel. 062-227-9600 Fax. 062-227-9500
■ 지사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번지 함평다이내스티C.C Tel. 061-320-7777 Fax. 061-320-7710